

파독간호사 삶의 재조명

Recapturing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김 학 선* · 홍 선 우** · 최 경 숙***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파독간호사들이 조국을 떠난 지 거의 반세기가 되어 간다. 그간 파독간호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사람들에게 알려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단편적인 면을 다루고 있으며 정작 파독간호사들에 대한 간호학적 관점을 살펴보는 내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08년 5월 23일,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는 한국간호사 파독 4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독일로 해외취업을 간간 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한 때 한국 GNP의 2%까지 차지할 정도로(이수길, 20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이하 진실위, 2009) 한국 경제발전사에 혁혁한 공헌을 한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를 회상했으며 그들의 노고에 대하여 독일과 한국 양국 정부관계자들의 치하와 감사가 줄을 이었다(간호신문, 2008. 6. 18)

1960년대 독일에서는 라인 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단기간의 경제부흥으로 완전 고용상태에 도달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동독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이 중단됨으로써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였다. 특히 자국간호

사들이 병원근무를 기피하면서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965년 한해의 경우에만 병원과 양로원에서 약 3만 명이 넘는 간호사의 신규고용이 필요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형편이었으며(김용찬, 2007; 최영숙, 2007),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간호사들의 수급이 절실한 형편이었다. 반면, 한국은 농업중심의 틀을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넘치는 노동인구를 수용할 기업체가 발달하지 못한 채 고학력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러한 실업문제는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므로(전경수, 1988) 해외인력 수출을 통한 고용창출, 실업률 감소를 통한 사회 안정의 이룩 및 외화획득을 통한 경제개발 투자자금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가 간호사의 독일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50년대부터 있어왔던 간호학생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종교적 소규모 파견과는 의미가 다르게 정식 간호사를 중심으로 한 128명의 일진 파독간호사들이 정부의 주도로 1966년 독일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으며, 이후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침체와 보다 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필리핀 등지로 눈을 돌리게 된 독일의 사정에 의하여 파독사업이 막을 내리게 된 1977년까지 우리 간호사들의 파견은 계속되었다(김진향,

*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 중앙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연구원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시간강사(교신처자 E-mail: swhongks77@freechal.com)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접수일: 2009. 10. 12 심사완료일: 2009. 10. 14 게재확정일: 2009. 11. 3

2007; 이영석과 박재홍, 2006)

독일로 일자리를 찾아 갔던 1만 여명을 상회하는 한국 간호사중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의 숫자는 대략 5,000여 명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을 하면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냈고 인내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타국에서의 긴 삶을 살아내기도 했다. 이제, 파독사업 초기에 독일로 떠났던 간호사들은 은퇴를 하고 연금을 수령 할 나이가 되었으며 그들 중 약 1,000여 명 정도는 미국, 캐나다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고 나머지는 한국으로 되돌아왔으며 그 중에 일부는 남해시가 그들을 위해 조성한 독일인 마을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김진향, 2007; 한국일보 2008. 6. 23).

1966년 당시 파독간호사들의 평균 봉급은 700마르크 정도였으며 이 금액이 당시 한국의 장관월급과 거의 동등했다는 이야기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던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을 가늠케 하는 근거자료로 자주 사용되어졌다. 또한 파독간호사들은 당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고소득의 직업을 갖기 어려웠던 시절에 선진국으로 진출하여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자료로도 자주 다루어졌다. 소수이기는 하나 재독일 교민의 역이주와 귀향의식에 대한 연구(이영석과 박재홍, 2006)나 문화예술촌 및 독일마을 활동 성과보고(김두관, 2000) 등 파독간호사의 의의에 대한 사회학적, 역사학적 고찰도 있다. 파독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살아온 이야기를 인터뷰하거나 진술한 기사 혹은 자서전 형식의 글도 있기는 하나, 정작 파독간호사들에 대한 간호학적 의의나 간호역사를 되짚어 본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럽식 간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노하우 등을 간호학적 견지에서 파악하고 더 나아가서 이를 한국간호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 또한 단일 전문직종의 대규모 해외이동에 따른 한국 내 인식의 변화나 효과 혹은 간호교육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독간호사가 경험한 삶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업적을 정리함으로써 파독간호사들이 경험한 삶의 간호학적 의의를 찾고자 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그룹 면담과 개인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Agar(1980)의 문화기술지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문화기술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왜 하는가를 이해하고 서술하기 위해서 행위의 사건과 의미에 관심을 두고 문화개념에 근거하여 행위와 경험을 해석한다(Roper & Shapira, 2000). 따라서 문화기술지 방법에서는 문화를 주요개념으로 하는데 문화는 한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생각, 신념,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학습되어지고 그들로 하여금 적절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보기 때문이다(최경숙 등, 2006). Agar(1986)는 개인의 행동양식과 특수한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이 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이라고 하였으며, 문제를 제기하고 왜해하고 결과적으로는 일치된 이해(해결)에 이르는 게 순서라고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파독 간호사 10명이다. 참여자는 주제에 관한 토의를 목적으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즉, 일진으로 파독되었다가 귀국한 후 한국 간호계에서 일하다가 정년퇴임한 그룹 3명(A1-3),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 4명(B1-4), 그리고 파독되었다가 국내로 역이주하여 독일마을에 정착한 그룹 3명(C1-3)이다.

참여자 평균 연령은 64.1세로서 54세에서 67세까지였으며, 파독 당시 평균연령은 23세였다. 대부분의 참여자(7명)가 파독초기인 1966년-67년에 그리고 3명은 1970년 이후에 파독되었으며, 독일 체류기간은 그룹 A의 3년, 3년 6개월, 6년 10개월이고 그룹 B는 평균 39.8년, 그룹 C는 39.3년이였다. 참여자중 3명은 독일인과 결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였다.

자료 수집 전에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고 참여자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대상자는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서 면담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09년 2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그룹 면담과 개인면담으로 하였다. 1차 그룹 면담과 개인 면담은 일진으로 파독되었다가 계약이 끝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간호계에서 일을 한 후 정년퇴임이 되신 3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09년 2월 16일에 진행하였다. 2차 그룹면담은 2009년 8월 28일에 4명의 파독간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70년대 중반에 파독되어 현재 독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거나 간호와 관련된 정부 일을 하고 있는 자들로서 세계한민족 여성 네트워크(KOWIN)의 참석자 중 일부 간호사들이었다. 3차 그룹 면담과 개인 면담은 2009년 9월 25일에 경상남도 남해시에 있는 독일마을 주민인 3명의 귀향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룹 면담은 1차는 5시간 30분간 특별히 마련한 좌담실에서, 2차는 2시간동안 인천국제공항 커피숍에서, 그리고 3차는 경상남도 남해군 독일마을에 거주하는 독일인 A씨 거실에서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개인 면담은 1차 및 3차 그룹 면담 전 또는 후에 약 20-30분간 이루어졌다.

그룹 면담 시에는 자연스럽게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전통 차와 떡 등을 준비하였고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연구자가 면담을 이끌었다. 연구자들은 그룹 토의진행 중에 녹음 및 메모를 하였으며 녹음에 대해서는 사전 양해를 받았다. 토의 후에 중요한 주제나 내용에 대해 토의하였고 이러한 토의와 녹음을 필사하였다. 또한 파독간호사와 관련된 신문이나 잡지의 기사, 방송 청취, 독일마을 홈페이지 등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 등의 2차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현재 이들이 살고 있는 독일마을을 직접 탐방하여 이들의 생활을 관찰하여 현장 메모를 작성 하였다.

다음은 면접에서 사용한 질문들이다.

- 1) 주 질문: “독일에 가시게 된 동기와 출발과정 그리고 그곳에서의 간호와 삶을 말씀해주세요.”
- 2) 보조질문: “떠나기 전과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살면서 느낀 감정이나 현 시점에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지요?”
 “독일의 간호가 한국의 간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파독간호사들이 독일과 한국의 간호에 영향을 주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 자료 분석

참여자의 진술과 현장 노트, 필사된 자료는 Agar (1980)의 분석단계에 따라 사건, 주제, 적용 등 세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분석은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시작하였다. 첫 단계의 분석은 참여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상적 사건들을 관찰하고 각 사건에 대한 의견과 설명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녹음자료를 옮겨 적은 필사본과 현장노트를 가지고 자료의 내용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요 사건을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은 첫 단계에서 발견된 주요사건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표현한 견해와 설명에서 주제를 찾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패턴을 찾기 위해 녹음자료, 필사본, 현장노트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주요사건과 주제를 찾아내고 기록한 것들을 주제별로 다시 묶어서 공통된 상황적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이 같은 방법을 반복함으로써 파독간호사의 삶에 대한 주요 기틀을 세우고 주요 주장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의 분석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찾아낸 주요사건과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참여자에게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전반적인 분석틀을 세우는 것이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면담이 끝난 후에 연구자 또는 보조진행자가 토의 내용 및 개인 면담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참여자에게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받았으며 불명확한 내용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연구결과를 2명의 참여자에게 확인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자료 분석을 통해 도출된 파독간호사들의 경험은 대상자들이 파독을 선택한 이유와 출발과정, 다음으로 독일에서의 간호사 생활, 그리고 40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으로 이야기가 모아질 수 있었다.

1. 삶에 도전하기 - 희망과 두려움

196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만으로도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평가되는 분위기였다. 더욱이 그러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남성의 경우에도 쉬운 일이 아

니었다. 또한 엄격한 가부장제하에서 남성우선이 당연 시되었기 때문에 비록 전문적인 지식을 대학에서 연마 했다 하더라도 여성으로서 직업을 갖고 사회에서 자리 매김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사회 생활을 하고 싶은 여성의 직업은 교사나 간호사 등으로 선택의 폭이 좁았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간호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해외로 취업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여성으로 공부하고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을 때였어요. 더군다나 외국에 나가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건 상당히 개인 집안이어야 가능했죠...” (A-2.)

“전쟁 후 기존의 도덕이 바뀌는 시기가 50-60년대였던 거 같아요. 스스로를 정립하기도 어렵던 시절이었고 뭐 이게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무엇이 옳지 판단하기도 어렵던 시기였지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신학문을 하신분도 아닌데 어쩔 그렇게 생각이 열린 분이셨는지 몰라요. 오빠들이야 남자니까 공부를 시키지만 여자도 이제는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한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끝내 저를 공부를 하게 해주셨거든요”(A-1)

“여자들한테 비싼 학비주고 대학공부 시키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제가 학교는 가고 싶어 하고 집에서 학비 대달라는 말이 안 나와서 고민하는데 담임선생님이 간호학교를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숙식이 해결되고 학비도 없다고 그래서 갔는데 정말 근처에 내노라하는 학교에서 전교 1,2 등하는 애들이 다 온 거예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우리학교서도 전교 1등 하던 000가 역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 방법 말고는 계속 공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죠”(A-3)

1960년대 중반 독일 여성들은 일의 강도가 세고 임금이 낮았던 간호사를 기피하였으므로 의료현장에서의 간호 인력은 지극히 부족하였고 당시 한국은 고학력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로서 해외인력 수출을 통한 고용 창출 및 실업률 감소를 통한 사회 안정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간호사의 독일 진출은 현실화 되었다. 뿐만 아니라 6.25 전쟁 후에 밀

려들어온 서양 문화를 통해 선진국의 삶에 호기심과 선망의 시선을 갖고 있던 젊은 전문직 간호사들에게 있어서 독일병원 취업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전 66년도 일진으로 갔었는데 그때 만해도 독일에 는 간호사가 모자라서 조무사를 쓸 때였어요. 외국에는 가보고 싶었는데 독일에 갈 간호사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지원하게 된 거죠.”(A-3)

“물론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면 임금이 엄청나게 높은 건 사실인데 가보니까 독일 내에서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힘든 거에 비해서 돈을 많이 주지 않으니까 독일 애들이 간호요원을 하려고 안하더라고요. 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독일도 간호사 임금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독일 애들이 하려고 들더라고요.”(B-2)

“70년대 초반이 우리나라가 일어서는 시기였으니까 60년대 중반에는 사실 참 못살았지요. 초등학교 때 한 선생님이 서양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랑 자녀교육방법 같은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게 그대로 제 가슴에 남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과 너무 다르면서 아름답다고 해야 하나, 말하자면 멋진 어떤 모습 뭐 그랬던 거 같아요. 그러다가 쉽게 독일 간다고 했지요”(A-2)

파독간호사 선발은 신문을 통한 공고로 이루어졌다. 특히 일부 병원 또는 학교출신들이 한꺼번에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인 간호사가 교육을 맡았거나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또는 외국문화에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모이면 독일 애기들을 하는 거예요. 신문에 공고난 걸 보고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B-2)

“선교사로 온 영국 간호사가 3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외국에 간호사로 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봤던 거 같아요.” (A-2)

“신줄 세 명이 같이 가보자하고 서류를 내고 면접도 같이 보러 갔어요. 저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간호를 접했는데 거기는 영국 간호사들이 와 있었죠. 그래서 외

국 간호사들의 모습을 익숙하게 봐 왔기 때문에”(A-3)

대부분의 간호사들은 설레임과 호기심으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성이 해외로 간다는 사실이 부모와 친지에게 충격을 주는 일이었으므로 처음에는 가족에게 숨기고 말을 하지 않았으며 일이 어느 정도 성사될 때까지 비밀로 하였다. 영화와 소설 속에서 동경하던 서양으로 간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혼자 찾아가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쉽지 않았고 보통 친구와 함께 혹은 선배의 충고와 권유로 원서를 넣었다.

“일이 다 될 때까지 말을 못하죠. 그때는 또 여자들이 학교 졸업하고 빨리 결혼하던 시절이고 올드미스가 되던 큰 일 나는 줄 알 때니까~ 엄마가 알면 못 가게 할 게 뻔하니까. 결혼도 안한 애가 그것도 외국에 나간다면~ 쉽게 오고 가고 할 수 없고 하니까”(C-2)

“친구들끼리만 알고 나중에 다 돼서 서류하고 그럴 때 이야기 하는 애들이 많았죠. 아무래도 집에서 말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요즘에야 외국에 나다니는게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가만 못 오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C-1)

합격이 되고 실제로 한국을 떠날 날이 다가오게 되자 흥분되고 설레던 마음들은 미지의 세계로 향한다는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60년대에 외국을 나간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는 일이었고 또한 비행기라는 여행수단이 일반화되기 전이므로 여행노선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특히 유럽으로 가는 것은 수많은 시간과 여러 곳을 경유해야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비행하는 거리상으로도 독일은 먼 곳이었지만 쉽게 오갈 수 없다는 심정적 거리는 엄청난 두려움을 자아냈다.

“당시 저는 결혼을 하고 아기가 10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원서는 내고 가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일단 독일을 가면 중간에 다니러 온다든지 하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말하자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다시는 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것과 같았지요”(A-1)

“처음 갈 때는 정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어요. 원

서내고 그럴 때까지는 사실 실감이 안 나고 외국으로 간다는 것만 흥분이 됐는데 막상 떠난다하니까 겁나고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3년이라 해도 일단 가면 한국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편지 말고는 집에 전화도 없는 집이 많을 때였으니까 서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겁이 나고... 그래도 간다 했으니까 가야지 생각도하고...”(C-2)

여러 가지 이유가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고소득에 속하는 임금의 유혹, 서양문명 사회의 동경, 새로운 도전,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쉽지 않은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은 대체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성향의 여성들이었으며 그러한 기질은 낯선 외국 땅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73년에 갔었는데, 월급을 745마르크를 받았습디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4만 5천원이거든요. 당시 한국에서 1만 5천원의 월급을 받았으니까 10배 이상이었던 거지요. 당시에 3년만 고생하면 대구서 4-50평집에 차를 가질 수 있다고 했거든요. 당시 자가용은 흔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C-3)

“돈 벌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니까 어쨌든 난 해보겠다고 생각하고...”(B-3)

“경험이 있어야 외국에서 받아준다는데~ 바로 외국으로 나가보고 싶었어요. 미국의 간호사로 가는 것이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미국은 가기가 쉽지 않았었고... 그래도 우리는 도전해 보자고 했지요”(A-3)

2. 새로운 삶 꺼안기 -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외로움과 설움

한국을 대표한다는 표현의 일환으로 간호사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독일의 공항에 도착했다. 특히 1965년 1월 31일에 도착한 1차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관심은 한국간호사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자상한 돌봄으로 돌아왔고 이는 간호사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독일 신문이랑 매스컴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구 관심들이 대단했죠. 한복을 입고 공항에 내려서 환영을 받고...”(A-2)

“한국에서 자기들을 돌봐주러 왔다고 환영이 대단했어요. 다른 병동에서 일부러 보러 오기도 하고 수간호사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고...”(B-1)

“저는 동양여자가 처음인 곳으로 발령을 받았죠. 당시 밖으로 나가면 택시가 공짜로 태워주곤 했죠. 여러 가지 편의도 봐주고 관심의 대상이었고...”(C-3)

“빨리 적응하라고 양부모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때 독일 사람들 신청이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가면 독일음식부터 시작해서 말이 얼마나 늘었는지 등등 신경을 써 주었어요. 영화도 같이 보러가고... 처음 적응하는 동안 그분들 도움이 정말 컸어요”(A-2)

독일은 모든 것이 한마디로 놀라움 그 자체였다. 영화에서 보던 거리와 생활모습과 절제된 감정의 표현, 수준높은 대화와 삶의 방식은 문화적 쇼크로 다가왔다. 또한 자로 켜 듯이 정확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태도와 개인적 의견을 당당하게 밝히는 독일 간호사 동료들의 모습은 공과 사를 나누기보다는 정과 나이가 끼어들어서 처신하기가 어렵고(A2) 다소곳하면서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워왔던 한국인 간호사들에게 놀라움인 동시에 부러움으로 다가왔다.

“병원시설이 너무 놀라웠죠. 그리고 그 청결하고 부지런함하고... 외국인이라 해도 능력이 있으면 그대로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B-3)

“우리나라 병원과 비교해서 놀라움으로 보고 배우죠. 한번은 서류를 제출할 것이 있어서 간호부를 갔는데 안의 내용물만 빼고는 봉투는 돌려주면서 이걸 다시 쓸 수 있으니까 가져가래요. 그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두 분의 대화내용이 오케스트라의 first violin 주자 자리가 어디냐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가 설거지를 하시면 마른걸레질은 할아버지가 하셨고, 토

요일에는 일주일동안 쓰고 남은 식재료를 다 모아서 죽 같은 것을 만들어 먹고, 우리병원 교수는 티코같은 차를 타고 와요. 근데 유리창 뒤편 아저씨는 벤츠를 타고 일하러 오죠!”(A-1)

반면에 한국간호사들에게는 건디기 어려운 외로움과 설움도 있었다. 보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쉽게 만날 수도 없고 소식을 전할 수도 없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으며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외로움을 극한으로 몰아가기도 했다. 더욱이 뛰어난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주위의 인정을 받고 승진의 기회까지 생기면서부터는 동료인 독일간호사들의 시기로 서러운 일을 당하기가 일쑤였다. 가장 힘들었던 언어장벽을 이용해서 한국인 간호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견뎌야 한다는 명제가 늘 버팀목이 되었으며 그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완고함이 힘이 되어주었다.

“처음에 가서는 언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향수병이 가장 무서워요. 그게 너무 심해지면 안 좋은 결과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도 여기서 주저앉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생각으로 견뎌지요.”(B-4)

“처음에는 친절하던 독일간호사들이 질투를 했어요. 인계할 때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무시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았죠. 특히 승진시기가 다가오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내 나라가 아니어서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구나 생각하면 서러웠죠. 당시 우리나라가 힘들게 살 때니까 어쨌든 견뎌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우리는 자존심이 강해서 힘들거나 뭐 그래도 표현을 잘 안하고...”(C-2)

3. 삶에 의미 부여하기 - 자부심과 아쉬움

계약이 끝나면서 한국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상당수가 재계약을 하고 독일에 남는 것을 선택했다. 귀국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혼문제였는데 혼기를 앞둔 자녀의 부모들의 권유와 설득 때문이었다. 일단 재계약을 하고 남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결혼을 하거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문호가 열리면서 선진 간호를 꿈꾸며 그곳으로 향했다.

“어느 정도 언어가 되고 승진도 되고 하니까 그대로 돌아오기가 아쉽기도 하고~ 독일서도 한국간호사들 인기가 너무 좋아서 재계약을 해주고 잡으니까”(B-3)

“첫 번 계약이 끝나니까 자꾸 더 있으라고, 월급도 더 주고 이런저런 것을 더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인들이 한국간호사들을 좋아할 만한 점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간다고 하니까 병원마다 다 잡았을 수밖에요”(A-2)

어디가 되었던 독일에서의 간호사생활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다. 어떤 일을 하든 정확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겸손하고 절약하는 독일정신은 한국적 정서와 맞물려서 나이가 먹어도 변치 않는 제 2의 천성이 되었다. 공동생활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적절하게 지키는 사회에서는 한국인 간호사는 성실하고 믿을 수 있으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최고의 간호사라는 평판을 유럽에 심어놓은 것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조국이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발전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했다는 뿌듯함도 있다.

“우리 정말 애국자였어요. 한국서 배운 대로 간호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가 미국식으로 배웠으니까 스킬을 현대식으로 제대로 배워 간 거니까요. 거기다가 부지런하고 짹짹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간호사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배워간 간호가 미국식 선진 간호였기 때문에 기술도 좋고 수준이 높다는 거였어요. 난 6개월 만에 밤근무를 혼자 맡기더라고요. 표창도 받았어요.”(A-3)

“유럽에서 한인사회의 여성지도자하면 간호사들이 많아요. 어디서나 정말 성실하고 검소하고 적극적이고 한국을 많이 생각하고... 독일식 생활이 이제는 편하기도 하고... 한국을 와보고 너무 화려하고 소비문화가 대단해서 깜짝 놀랐죠”(B-3)

그러나 귀국한 파독간호사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서운함과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또한 자신들이 이야기가 사실과 다르게 보도되거나 초기의 언어문제나 한국에 오고가기 힘들고

어려웠던 때의 부정적인 면들만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공정하게 바로잡고, 있는 그대로의 삶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길 원한다고 하였다.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분명히 있었으나 그것은 타국에서 살아낸 삶의 작은 부분이었을 뿐이며 오히려 아름답고 즐거웠던 뿌듯한 이야기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인생의 마무리를 앞둔 나이에 이르러 그러한 생각들은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했다.

“일선에서도 이제 물러났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독일에 가서 지냈던 시절은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얻어온 것이 더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서 균형있게 다루어지고 제대로 평가를 다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지요.”(A-2)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삶을 다큐멘트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힘들었던 점과 분명히 우리가 독일에 기여한 점도 있고 한국에도 기여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걸 균형있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B-4)

“독일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꿈을 가지고 왔는데 모두 남해바다에 빠져버렸어요”(C-1)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고향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오기에 한국으로 나오기로 결심했는데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건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3개월간 그렇게 보험없이 불안하게 살았죠. 또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뛰었던 간호사들이잖아요? 처음 왔을 때 보건소에 가서 진료도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보건소선생님들이 정식으로 도움을 받자고 하셨는데 대한민국법이 그게 안된다 하더라고요”(C-3)

IV. 논 의

연구 결과, 파독간호사의 경험은 세 가지 과정 즉, 삶에 도전하기, 새로운 삶 껴안기, 삶에 의미 부여하기로 나타났다. 각 과정에 따른 간호학적 의의를 적용한다면, 우선, 첫 단계인 삶에 도전하기에서는 결론과 동시에 가정에 안주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겨지

는 일반적 사회분위기인 당시(김양호, 1997)에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더 나아가서 해외근로를 선택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는 도전적인 자세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긴 했으나 선진국 또는 서구문명에 대한 선망과 모험심이 크게 작용하였다(심운중, 1975; 이영석과 박재홍, 2006). 한편, 파독간호사의 이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봉건적 가족관계로부터 기인한 전통적 여성의 사회적 지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김용찬, 2007).

두 번째인 새로운 삶 껴안기는 놀라움과 부러움이자 동시에 외로움과 설움으로 나타내진다. 낯선 땅 이국에서 펼쳐지는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새로운 삶이었다. 가치관과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놀라움과 경제력과 환경에 대한 부러움이 있었다면 고국과의 거리적, 심정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의 임상중심의 전문적 간호가 아닌 기본간호에 충실한 독일식 간호개념으로 인한 당혹감과 적응은 언어장벽과 맞물려서 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병원이나 현대식으로 변화된 병원이 아닌 요양소나 양로원 등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러한 설움이 더 컸다(김조자, 1975)

세 번째 단계는 삶에 의미 부여하기이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시절 외화획득으로 나라의 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는 자부심, 당당함, 뿌듯함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아쉬움이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도에 민주노동당 유류위원회의 재외동문 설문조사에 따르면(김진향, 2007)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60/70년대 독일에 취업한 간호사와 광부들의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70.3%가 “매우 중요했다”라고 하였고 23.8%가 “중요했다”고 대답하였다.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한국의 평가에 대해서는 31.7%만이 “알려져 있고 제대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한국의 경제개발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공히 인정되는 파독간호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간 파독간호사의 삶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의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파독간호사의 삶에 대한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사실이 아니라기보다는 지극히 일부분만이 편향되게 보도됨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삶이 아니라 왜곡되어

졌다는 것이다. 그들은 ‘공정한’, ‘균형잡힌’ 등의 단어를 사용했으며 ‘제대로’ ‘확실하게’ 문제를 짚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향간에 떠돌던 소문 또는 일부 언론, 심지어 국가기록원 포탈시스템(2006)에서조차 당시 파독간호사와 광부들의 월급을 담보로 하여 독일차관유치가 이루어졌다는 기사가 있었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위원회의 조사(2008)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편, 파독간호사의 사회문화적 효과와 해외한인동포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점, 그리고 외교적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많이 있으나 현재까지 간호학적 관점으로 파독간호사들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시작이 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앞으로도 간호학적 평가를 이룰 수 있는 심도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파독간호사들이 한국과 독일 양국의 간호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당시 독일은 종래의 양로원의 성격을 겸한 병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 병원의 시설현대화와 간호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였다(강규숙, 1978). 간호사자격은 중학교 과정졸업만으로 가능하였고 간호사는 환자의 치료계획에 함께 참여할 수 없으며 간호사와 간호보조원과의 차이도 없었다. 반면, 1960년대 한국의 간호교육과 기술은 미국의 현대적 간호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전인간호, 지역사회간호, 보건간호 등 독자적인 간호를 지향하는 교육환경에서 길러진 친절하고 선진기술을 갖춘 한국의 간호사들을 독일입장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김조자, 1975). 또한 강규숙(1978)은 ‘서백림사회와 한국간호원’에서 한국간호사가 독일 사회의 간호사에 대한 사회통념을 향상시켰다고 서술했다. 종래의 하류직군에 속해있던 간호사라는 직업이 한국간호사의 성실한 근무태도와 인기로 인해 일반통념을 향상시키고 보수도 개선하고 교육도 강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파독간호사의 가치평가는 ‘친절하고 기술이 좋은 간호사’에 그치고 있을 뿐이며, 한국간호사의 전문성이 독일 간호계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을 논의한 문헌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간호학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파독간호사가 한국 간호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간호보조원(현 간호조무사)이라는 간호관련 직업

이 새로 생긴 것을 들 수 있다. 이들은 9개월 이론과 3개월 실습 등 모두 일 년의 이수과정을 거친 후에 간호보조원 자격증을 받았는데 한국에는 1960년 중반까지도 그런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971년에서 74년의 Korea-Program으로 9,800명의 보조원이 필요하게 되자 독일수출에 필요한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간호보조원 양성학교가 많이 생겼던 것이다(김진향, 2007).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으로 간호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들 수 있겠다. 본 연구 참여자들의 증언처럼 외국여행이 쉽지 않던 시기에 여성으로서 해외에 취업을 하고 상당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직업으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근로는 간호사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경제적인 이유든, 서구문명에 대한 호기심이든 국내에 국한되었던 취업의 길이 고소득의 해외취업으로 진출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심윤중(1975)은 이를 두고 막대한 교육투자로 키워놓은 전문인력을 서구의 복지국가에 빼앗기는 모순이라고 지적하였지만 오히려 선진국에서 일하는 고소득자로 인식됨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한국간호계의 임금과 지위가 격상되는데 밑거름이 되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한편, 귀국한 일부 간호사에게는 독일에서의 근무경험이 오히려 취업에 장애가 되었다. 독일 간호사들의 전문지식이나 수준이 한국보다 낮았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데 힘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독립적이고, 개성적인 의식화된 삶을 살아왔는데 한국의 개인병원이나 사회에서는 의식화된 간호사나 반항적인 간호사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김진향, 2007).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인력 수출이 한국 의료계에 미쳤던 영향은 한국의 의료체제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시골에서는 충분한 의료체제가 보장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1967년 보건당국에 의하면 경기도에 정식간호사가 80%였는데 파독이 시작되고 1970년에 한국에 남은 간호사는 20%였고 전체적으로 26%가 부족하였으며, 1971년 시골에서는 80% 간호사가 부족했고 전국적으로 12,437 명이 부족했다. 그 결과 세계보건기구는 한국의 의료체제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더 이상 해외에 파견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김진향, 2007).

이처럼 파독간호사들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해외근로파견의 중심에 있었다. 20대 중반의

나으로 해외근로경험을 했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이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되었다. 독일취업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개인적인 선택이기는 하나 고국의 경제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 준 것은 이미 수많은 보고서와 논문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기대하고 40여년을 살아온 제 2의 고향인 독일에 자식과 친구들을 남겨둔 채, 남해시 독일마을로 돌아온 이들의 삶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결과 문화적 삶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반시설에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장의 혜택조차 받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한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며 고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마을의 성패는 우리 사회가 과거의 장단점을 생산적 자산으로 포용하고 유용하게 활용함으로써 건강한 현재와 진전된 미래를 도모하는 힘을 지닌 사회인지를 가늠하는 잣대이다(이영석과 박재홍, 2006).

“독일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꿈을 가지고 왔는데 모두 남해바다에 빠져버렸어요”(C-1)

우리는 그들의 꿈을 다시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손을 내밀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파독간호사가 경험한 삶은 어떠한가?”라는 연구 질문 하에 파독간호사들의 삶의 의미를 간호학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연구의 방법은 그룹면담과 개인 면담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파독간호사 10명으로서 세 개의 그룹 즉, 파독사업 초기에 취업하였다가 계약만료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그룹 3명(A1-3), 현재까지 독일에서 살고 있는 간호사들로서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KOWIN)의 참석자 중 일부인 그룹 4명(B1-4), 그리고 파독되었다가 국내로 역이주하여 남해시 독일마을에 정착한 그룹 3명(C1-3)이다. 자료 수집은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3회의 그룹 면담과 개인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룹 면담은 2시간에서 6시간 소요되었고, 개인 면담은 그룹 면담 전 또는 후에 약 20-30분간 이루어졌다. 그룹 필사본과 개인면담 필사본, 현장 노트, 메모 등을

Agar(1980)의 분석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파독 간호사들의 삶은 '삶에 도전하기', '새로운 삶 껴안기', '삶에 의미 부여하기'로 도출되었다. '삶의 도전하기'는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전문직 진출이 어렵던 1960년대에 간호사로서 만족하지 않고 해외 진출의 기회를 과감히 선택한 파독간호사들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으며 '희망'과 함께 '두려움'이 그들의 감정을 대표하였다. '새로운 삶 껴안기'는 독일에 도착한 간호사들이 사방에서 겪게 되는 새로운 문화와 언어세계에 스스로를 그대로 노출하면서 '놀라움'과 '부러움'의 마음과 함께 쉽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외로움과 설움'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삶에 의미 부여하기'는 파독간호사들이 은퇴에 즈음하거나 이미 은퇴를 한 연령에서 지나온 삶의 큰 사건이었던 독일생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 젊은 지식 여성들의 집단적 이주의 형식을 띄게 되었던 독일파견 사건이 국가에 큰 기여를 했다는 '자부심'과 더불어 이러한 측면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그 속성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부정적인 면들만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이를 공정하게 바로잡고, 있는 그대로의 삶이 균형있게 다루어지길 원한다고 하였다. 또한 은퇴를 앞둔 혹은 은퇴한 연령대로서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으며 고국으로 향하는 귀소본능과 더불어 안정적 삶이 고국에서도 보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따라서 파독간호사들의 이러한 바램은 이들에 대한 재평가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파독간호사의 삶의 경험에 대한 간호학적 평가를 제시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하여 파독간호사의 삶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연구라고 본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파독간호사에 대한 간호학적 평가를 심도있게 수행 할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강규숙 (1978). 서백림 사회와 한국 간호원. 대한간호, 17(3), 25-30.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2006, December 1). 간호원 및 광부 독일파견. Retrieved October 7, 2009, from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0273>

김두관 (2000). 문화예술촌 및 독일마을 활동 성과 보고(연설문 2000. 6. 30). 남해군의회.
 김양호 (1997). 가족의 관계역동성과 문제의식. 생활문화연구, 11, 21-48.
 김용찬 (2007). 한인여성 노동자 국제이주와 여성조직의 발전: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4, 136-157.
 김조자 (1975) 서독주재 간호요원의 발전을 위한 취업실태 조사연구. 대한간호, 14(2), 24-35.
 김진향 (2007, November). 1960/70년대 독일로 온 한국 간호사들 - 한국에서 온 부드러운 천사들. 2007년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한독공동심포지엄 발표 자료. 대전.
 심윤중 (1975). 해외취업인의 실태. 충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 연구소 논문집, 1825-1838.
 이수길 (2007). 개천에서 나온 용. 서울: 리토피아
 이영석, 박재홍 (2006). 재독일 교민의 역이주와 귀향의식에 대한 연구-남해군 '독일마을' 입주 교민들의 경우. 독어교육, 36, 443-480.
 전경수 (1988). 한국의 해외취업: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62.
 간호신문 (2008. 6. 18). 파독간호 42주년 기념행사 열려.
 진실화해 (2008). 진실규명 결정된 사건요지. 제 12호,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09, March 19). 파독 광부·간호사의 한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의 건. in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1). Retrieved October 7, 2009, from http://www.jinsil.go.kr/Information_Notice/report/index.asp
 최경숙, 전명희, 은영, 권성복 역 (2006). 문화기술 간호연구. 서울: 현문사.
 최영숙 (2007, November). 파독간호사의 투쟁사례. 2007년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한독공동심포지엄 발표 자료. 대전.
 한국일보 (2008. 6. 23). 여성 이주의 역사 100년을 말한다.
 Agar, M. H. (1980). The Professional Stranger. Orland: Academic Press, Inc.
 Agar, M. H. (1986). Speaking of Ehtnography. Nebury Park CA: Sage.

Roper, J. M., & Shapira, J. (2000). *Ethnography in nursing research*. California: Sage Pub.

- Abstract -

Recapturing the Lives and Experiences of Korean Nurses Dispatched to Germany in the 1960s and 1970s

Kim, Hack Sun · Hong, Sun Woo**
Choi, Kyung Sook****

Purpose: While there exist a good number of studies on Korean nurses who were dispatched to Germany in 1960s and 1970s in sociological or labor economic perspective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their experiences from a nursing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apture their lives and experiences from a nursing point of view.

Methods: This paper adopts an Agar's ethnographic approach which is more suitable to investigate personal qualitative experiences

of those Korean nurs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group discussion and individual interview, and field observation with 10 dispatched Korean nurses. **Results:** The experiences of those dispatched nurses to Germany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themes: challenging to life, embracing new life, and giving a meaning to life. Challenging to life involved 'hope and anxiety,' and embracing new life was reflected by 'wonderment and envy' and 'loneliness and sorrow.' Lastly, they took pride in their contributions to their mother country and also felt something lacking that they had not been properly evaluated.

Conclusion: By rediscovering their lives and experiences from a nursing perspective, this study argues for more future studies to reexamine their impact and contribution to the nursing field in Korea.

Key words : Korean nurses, Germany,
Experiences, Nursing approach,
Ethnography

* Instructor, Nursing Department, Daejeon University;
Researcher, Nursing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Ang University
** Instructor, Nursing Depart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Nursing Department, Chung-Ang University